

노란 침입자, ‘큰금계국’을 경계하라

의정단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초여름이 되면 전국 각지의 하천변과 도로변이 노란 꽃으로 물든다. 관광객들은 이 화려한 꽃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지자체는 경관개선과 관광자원으로 이 꽃을 활용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우리 지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계국’으로 알고 있는 이 식물의 정체는 바로 ‘큰금계국(Coreopsis grandiflora)’이다. 진짜 금계국과 달리 큰금계국은 여러해살이 식물로, 꽃줄 안쪽에 갈색 테두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북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이 외래종은 1960년대 이후 조경 및 사방용으로 도입되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도로변 및 공원 조경에 널리 활용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강인한 생명력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확산 속도가 빨라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큰금계국을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판정했으며,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법정관리할 필요

가 있는 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해남 땅끝과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109개 트레킹코스인 서해랑길 무안 구간을 걸으면서 큰금계국의 폐해를 직접 관찰한 적이 있다. 큰금계국이 자라는 구역에서는 다른 식물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노란 꽃만 가득한 단일 식생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전반의 먹이사슬, 환경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 강원지역 언론 기사에 따르면 강릉 경포호와 속초해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2017년부터 1만 5000여 ㎡ 면적에 큰금계국을 조성했으나 지난해에야 이것이 외래종인 줄 파악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지자체조차 정확한 정보 없이 이해성이 우려되는 식물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는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별한 식재 지침이 없어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조경용 명목으로 식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큰금계국 분포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위해성을 정밀 분석하는 정기적 모니터링이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지정·관리 체계만으로는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므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의 생태계 관리 조례 제정, 자체 예산 편성, 전문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관식물 사업에서 외래종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토종 식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큰금계국을 단순히 예쁜 꽃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바꾸기 위해 대중 인식 개선과 교육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큰금계국의 확산을 막으려면 씨앗이 맺히기 전에 베거나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지금 당장 새로운 큰금계국 식재를 중단하고 기존 군락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

큰금계국이 만들어 내는 노란 꽃길은 분명 아름답다. 하지만 이 어디서나 노란 큰금계국만 가득한 상황은 생태계 붕괴를 암시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자연은 다양한 생명체의 공존 속에서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주목해야 할 때다. 후손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해 지금 당장 큰금계국 확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진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베어세바에서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맞아 소로카 병원 단지 밖에 잔해가 흩어져 있다. AP/연합뉴스

서석대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 들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뭉근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보폭이라도 뚫고 쏟아져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번덕을 부리면서 철쭉의 밤을 온통 물결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1973년, 당시만 해도 거의 무명작가였던 윤홍길의 쓴 중편 소설 ‘장마’는 지루한 장마를 통해 남북분단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 작품이다. 국군으로 전쟁에 참가해 전사한 아들을 둔 외할머니와, 빨치산 아들을 둔 친할머니의 기구한 운명. 그 속에서 장마는 불행한 전쟁의 상징이었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번 더 쏟아져 빨갱이들 다 쓸어버라.”는 대목에도 장맛비로 마음속에 숨겨둔 한을 풀려는 작가의 의도가 묻어난다.

다산 정약용에게도 장마는 농민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불청객이었다. “괴롭고 괴로운 비 일부러 내리는 듯/맑은 해 나지 않고 구름도 안 걷힌다/보리는 싹이 돋고 밭에 누웠는데… /누운 보리 못 일어남을 그 누가 알겠는가.”라는 ‘고우탄’이라는 시에는 내리 퍼붓는 장맛비에 보리와 밭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시름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애뜻하게 담겨있다. “장맛비 내린대서 괴로워할 것 있나/날 맑아도 혼자서 탄식할 뿐인 것을.”이라는 구절에서는 장마로 인한 시름뿐 아니라 날이 맑아도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지식인의 무력감이 느껴진다.

장마



‘장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순 우리말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했던 만큼 장마에 얽힌 속담도 많다. ‘가뭄 끝은 있어도 물난 끝은 없다’는 말은 가뭄 때는 농사만 안되지만 장마로 홍수가 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와 물을 무섭게 여기라는 의미다. ‘불난 끝은 있어도 물난 끝은 없다’는 속담도 비슷한 의미다. ‘삼 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장마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유월 장마에는 돌도 크다’고 했듯 농업이 주업이었던 한민족에게 1년 강수량의 3분이 1이 집중되는 장

마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존재였다. 지난 주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가 1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특히 장마가 본격화되는 20일 오후부터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폭우가 예상된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시대, 폭우와 폭염 등 극한적 기후는 일상이 됐다. 광주·전남도 지난해 극값을 경신한 하루 강수량으로 역대급 기후재앙을 경험했다. 그래도 장마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면서 적어도 ‘물’을 생각하면 없어서는 안될 연례행사다. 두 얼굴을 가진 장마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시작된 첫 장마, 다산이 걱정했던 고우(苦雨)가 아니고 감우(甘雨·단비)로 지나가면 좋겠다.

이용환 논설실장

社說

온누리상품권, 광주 서구의 실험 반감다

상권살리기 사례 전국 확산을

광주광역시 서구가 골목형 상점가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달부터 서구는 소상공인들과 협력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대폭 늘리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결과,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별도 예산 부담이나 시스템 구축 없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도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지역화폐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서구는 현재까지 112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7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광주 전체 208곳 중 절반 이상이 서구에 몰려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반증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는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일부 상권에서는 매출이 10~20%

증가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서구 사례는 지자체와 상인회,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구 사례의 의미는 또 단순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골목형 상점이 내 홍보지원단 운영, 상인회의 캠페인 전개 등 민·관이 협력해 지역경제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가고 있다는 점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전국 골목상권 회복의 성공 모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물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단기적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상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과 비인기 업종·취약 상권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골목경제는 지역경제의 뿌리다. 온누리상품권을 기반으로 한 광주 서구의 실험이 골목경제 회복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할 때다.

광주교육청 명분 위해 공정성 포기했다

필기시험 성적 규정 변경 안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학교법인에 일임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고 한다. 현재의 필기시험 성적 반영이 공정성을 담보하지도 못한 채 사학법인의 거부감만 키웠다는 게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전체 법인이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대신 그나마 공정성을 담보했던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한 교육당국의 결정이 안타깝다. 교원단체도 ‘공정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사학법인이사장협의회와 사립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협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협의안에는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시교육청 위탁채용에 거부감을 표시했던 일부 학교법인들도 위탁채용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성적 합산에 20%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를 법인 자율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1

차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성적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에서 기존보다 자유스럽게 신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됐다.

모든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위탁채용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큰 진전이다. 그렇다고 필기시험 성적 반영까지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객관적 지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사학법인에게 필요한 것도 자율성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 철저한 채용기준과 절차가 사라질 경우 채용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광주교사노조도 이날 “시교육청이 공정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후퇴를 결정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잇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사학의 채용 비리다. 위탁채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성을 버린 것도 앞뒤가 바뀐 잘못된 발상이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담보될 수 있다면 위탁채용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를 높일 의지마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교육단체의 하소연이 공감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